

(auri)

한옥정책 BRIEF

No. 2

한옥의 정의와 범위

전 봉 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강 민

국가한옥센터 부연구위원

한옥정책브리프 제2호

2011년 11월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손 세 관

431-908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 031.478.9600

F 031.478.9609

www.auri.re.kr



auri
NATIONAL
HANOK
CENTER



한옥의 정의와 의미

1. 한옥의 제도적 정의

2010년 2월 1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근대식의 조직조, 철근콘크리트조, 그리고 철골조를 주된 고려 사항으로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통 목조구조인 한옥의 입장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는데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이러한 몇몇의 조항에 대하여 완화 규정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택을 위해서는 한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이 정의되기 이전에는 지자체 조례별로 각각 한옥이 정의되었다. 2002년 전주시에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전통도시한옥’을 정의한 것을 시발점으로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조례에 한옥이 정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활발한 한옥건축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2007년부터 각 시군의 조례에 한옥 관련 조항이 들어간 사례가 22건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에 한옥이 정의된 것은 사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먼저였

다. 2009년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옥체험업을 추가하면서 한옥이 정의되었다.

이들 법령과 조례는 한옥건축에서 특히 불리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한옥의 정의는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 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 몇 가지 어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거의 모든 정의에서 제시된 한옥여부 판단의 기준은 ‘한식기와’와 ‘목구조’였다. 다음으로 ‘전통미’와 ‘자연재료’가 제시되었다. 전통미 혹은 전통양식이라는 다소 애매하고 개방적 규정을 사용한 것은 이 시대에 한옥을 짓는 건축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재료의 사용을 규정한 것은 친환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건축계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인지 공공건축물인지 등 용도의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새로운 조형이나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법령	소관부처	내용	제정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제2조(정의)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2.1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구조부가 목구조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 제21768호, 2009.10.7

표1. 법령에서 정의된 한옥

지자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한옥의 정의	해당 지자체	제정일
“전통도시한옥”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북 전주시	2002.02.15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시	2002.05.20
	경기 수원시	2009.06.19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도청	2005.12.29
	전남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2007~2009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여수시	2007.05.3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인 기둥 및 지붕틀이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무안군	2008.10.27
“한옥”이라 함은 기둥 및 지붕틀이 목재, 지붕 마감재는 한식기와이며, 벽체는 흙, 황토벽돌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영암군	2008.01.31
	전남 고흥군	2009.01.09
	전남 함평군	2009.01.20
	전남 장성군	2009.06.23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럭),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담양군	2009.04.20
“한옥”이라 함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 중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북 고령군	2009.12.2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남 도청	2009.12.31
“전통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북 경주시	2010.05.12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라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북 완주군	2010.10.07

표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된 한옥

법령 및 조례	한식기와	목구조	전통미	자연재료
고령군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서울시, 수원시, 경주시, 전주시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완주군	○	○	○	○
담양군,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	○		○
여주시, 무안군, 전라남도 본청,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남도 본청	○	○		

표3. 법령 및 조례에서 정의된 한옥의 기준들

2. 한옥 용어의 유래와 의미

근대시기 서양식 건물이 많이 지어졌던 정동길에 남아있던 기와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한옥은 점차 용례가 증가하면서 1975년 경 사전에 수록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되었다.¹

한옥은 한자어 '한(韓)'과 '옥(屋)'을 합하여 만든 말로서 한국의 집 또는 한민족의 집으로 이해된다. 이때 한은 용어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보아 좁게는 대한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한은 고대 삼한(三韓)의 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²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아 특정 왕조나 국가의 개념보다는 우리 민족 혹은 우리 민족이 정착해온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또 옥의 훈(訓)은 집이지만, 우리말에서 집이란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일반을 총칭하는 기본적인 용어로서, 중세 한국어의 사례에서 집을 훈으로 달고 있는 한자어는 모두 23개에 이를 정도로 폭이 넓다.³

그렇다면 한옥의 규정은 어디까지를 한민족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한옥의 형태는 지역과 시대에 따른 차이가 엄연하고, 그 원형을 쫓는 일도 간단치 않다. 세대를 걸쳐 계속 사용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어디부터를 한민족의 특성이 발현되는 시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기 어렵다.



그림1. 1527년(중종 22)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家와 宅은 물론, 宮, 殿, 房, 廬, 院 등 모두 23개의 한자어가 집을 훈(訓)으로 달고 있다.

1 『삼성 새우리말 큰사전』, 1975

2 이운상, 「한말, 개항기, 개화기, 애국계몽기」,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006. p.90

3 Jeon, BongHee, 「Conflicts and Reconciliations of Terms Relating to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the Korean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Architectural Culture, Kyoto 2006. Discussion Panels』, proceeding, 2006.12, pp.89~99

3. 한옥의 다층적 의미

논점을 정리하면, 건축 양식의 문제로서 한(韓)과 건축 용도의 문제로서 옥(屋)을 분리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인용한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한옥에 대한 규정은 용도에 대해선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의 표에 따르면 A와 C를 포괄하고 있다. 다른 한편,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난방방식으로 온돌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좌식의 기거양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남향의 전면에 거실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방을 배열하는 등 전통 한옥의 모습을 닮은 공간 구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파트 역시 한옥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때의 한옥은 A와 B의 집합을 포괄하는 한국인의 주택을 모두를 포괄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두 개의 주장이 존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건축관과 역사관의 차이에서 비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의 경계, 주택과 비주택의 경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현대 건축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재래 한옥은 개항 이후 벽돌, 유리, 철물과 같은 외래의 건축 자재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도입하거나 지붕 아래 현대식 단열재를 넣고 공조 설비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래 건축과의 공통점이 늘어났다. 외래 건축의 경우도, 아파트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서구식의 아파트 평면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의 주생활에 맞게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도, 원래는 주택으로 지어졌으나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나 기능이 혼합된 경우도 가능하다. 또 병원과 학교, 사무소 등 근대 이후에 새로 생겨난 많은 기능들은 본질적으로 중세 시대의 주거가 담당하였던 기능에서 분화한 것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주거의 속성을 품고 있다. 병실과 교실과 개인 사무실 등에서도 주거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세법(稅法)과 관련하여 세간의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볼 것인가 비주거로 볼 것인가의 판단도 모호한 상태이다.

이처럼 한옥을 정의하는 일은 단지 제도적 지원을 위한方便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미래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에도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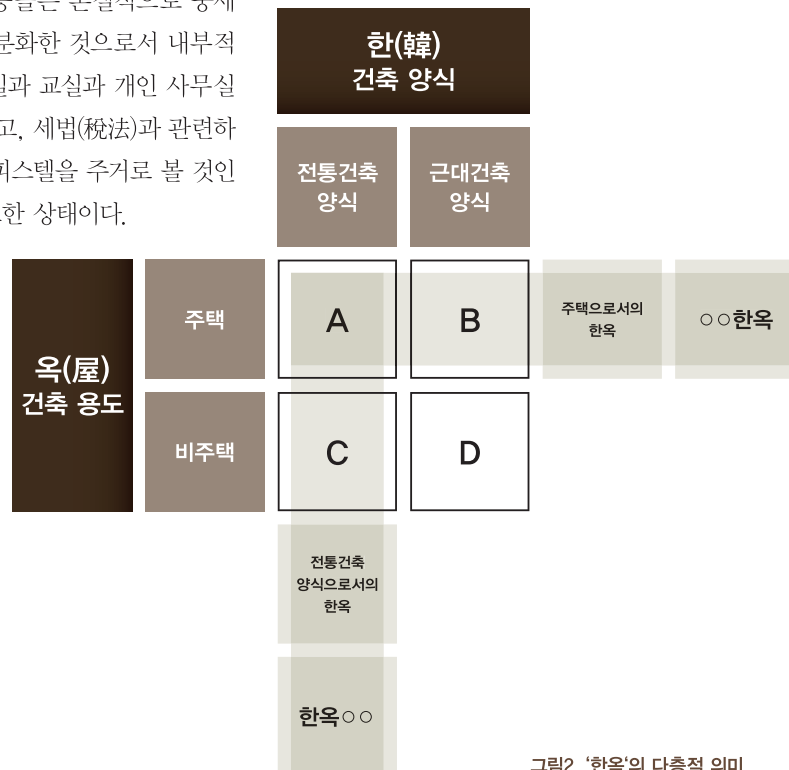


그림2. '한옥'의 다층적 의미

한옥의 분류와 범위

1. 한옥의 표기법

현대 한옥의 여러 다양한 갈래를 포괄하기 위해선, 위의 표에 등장하는 모든 범주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한옥 자체에 대한 제한적 정의를 일단 접어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양태를 용도의 문제와 전통에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삼아 여러 차원의 수식어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현실성을 가진다. 즉, 전통 한옥, 도시형 한옥, 현대 한옥 등과 같이 'OO한옥'이라고 명명하는 방안과 한옥치과, 한옥호텔, 한옥동사무소 등과 같이 '한옥OO'라고 명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전통 혹은 정통에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건축양식을 세분하여 부르는 이름이고, 후자는 용도를 기준으로 한옥의 외형을 띤 다양한 적용례를 지적하여 붙인 이름이다. 따라서 OO한옥은 위의 표에서 가로축을, 한옥OO은 세로축을 의식한 명명법이라 할 수 있다.

한옥 동사무소와 한옥 치과, 한옥 호텔 등의 경우는 모두 목조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전통 목구조의 틀과 전통 기와지붕 등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마감과 공간감 등은 새로운 용도에 맞게 상당한 변형을 한 경우이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외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한옥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현대 한옥으로 보는데 논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건축양식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는 OO한옥의 경우이다. 건축의 본질이 정면에 있다고 믿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그것이 공간에 있다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끼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의 요소가 함께 모여 이루는 건축의 본질 가운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어느 한 면을 부각하기 위한 언설이지, 그것만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건축적 추구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는 아름다움조차 눈으로 보고 만져서 느끼는 감각적 판단에서부터, 주변 환경과의 심리적 조화에서 오는 정서적 판단, 시대적 부름에 답하는 윤리적 일체감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까지 다양한 차원을 갖는다.



그림3. 서울 가회동에 있는 주택 (현대한옥)



그림4. 혜화동 주민센터 (한옥 동사무소)

2. 한옥의 분류

한옥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다(多) 차원의 기준들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의 표는 문화재 한옥, 정통 한옥, 현대 한옥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한옥과, 비록 한옥의 용어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한옥의 미학적 가치를 수용한 다른 두 가지 차원의 현대 건축을 포괄한 개념모식도이다. 가로축은 전통적인 기법에의 충실도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현대적 구조와 설비의 적용도를 나타낸다.

①문화재 한옥은 이미 지은 지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 유일성과 완전성으로 인하여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 한옥은 정통성의 판단 기준이 되며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 ②정통 한옥은 문화재 한옥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 살린 것을 말한다. 기둥과 보, 서까래와 지붕은 물론 외부에 보이는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전통의 기법으로 되살렸으나, 실내 공간에서는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였으며, 냉난방의 설비와 전기설비, 단열과 위생설비 등에 현대적인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좁은 범위의 한옥 범주의 경계에 위치하는 ③현대 한옥은 기둥과 보, 지붕틀 등의 주요 구조부를 목조로 하였고, 외관의 주요한 요소인 지붕과 기단, 벽체 등에서 전통적인 형식을 따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옥 정의 속에 포함된다.

한옥의 제한적 규정밖에 위치한 ④한옥풍 건축은, 현대 건축의 일부 실내공간에 설치한 한실(韓室)의 경우와 외관만을 한옥 형태로 지은 의사(擬似) 한옥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주의 보문단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한옥들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⑤한류건축이다. 앞선 경우들과 달리 이 부분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판단의 차이가 있고, 전문가 사이에도 강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1960년대 한국현대 건축에서 유명한 김수근의 부여박물관을 둘러싼 전통논쟁 이후, 한국건축의 현대화를 둘러싼 오랜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한국성을 표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그들의 예술적 성취가 뚜렷한 경우, 혹은 그와 관련없이 폭넓은 사용자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모두 한류건축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 승효상의 수졸당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기와지붕을 올리지도 않고, 목구조를 사용한 것도 아니지만, 수졸당의 공간 구성은 안마당을 둘러싼 도시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았으며, 마당을 향하여 열린 대청 같은 거실과 그에 비친 집의 내면은 한옥이 가지는 공간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후자는 모든 종류의 한국 현대 토속건축을 말한다. 현대 토속건축은 전문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채 사용자 주도에 의해 일상적으로 지어지는 건축을 의미한다. 아파트가 대표적이지만 우리의 도시 풍경과 농촌 풍경을 만들어 내는 건축의 모습은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한류건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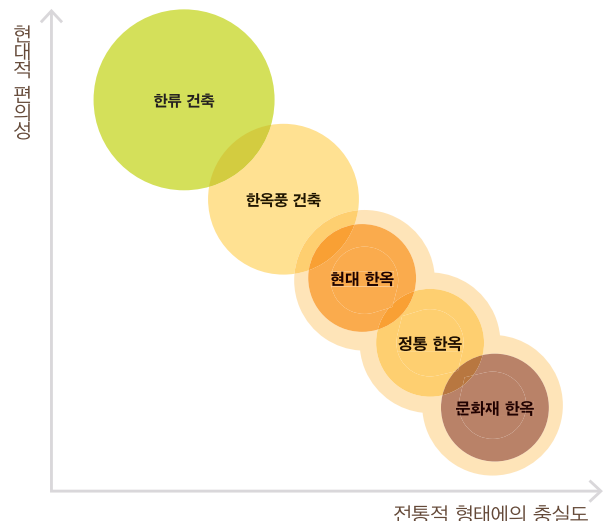


그림5. 한옥의 다층위적 양상에 관한 개념 모식도

3. 신한옥의 의미

위와 같은 5가지의 구분은 넓은 의미의 한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중 한류 건축과 한옥풍 건축을 제외한 3가지, 즉 ○○한옥으로 명명되는 현대한옥, 정통한옥, 문화재 한옥이 본격적인 한옥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문화재한옥은 보존과 관리, 정통한옥은 보존과 활용, 현대한옥은 보급과 육성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문화재한옥을 제외하면 이들 한옥은 시공비의 절감, 단열·기밀성의 확보, 대규모공간의 실현을 위해서 일부 재료와 구조방식 및 이를 반영한 건축형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용어로 사용되는 신한옥은 이처럼 한옥의 현대화 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정의된다. 즉,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기술과 재료면에서 자유도를 높여 다양한 건축실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통 신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방식과 혁신적인 시공방식, 성능 향상된 재료 등으로 구축된 건물로 정의되는데⁴,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시공비 절감을 위해 트러스 구조를 채용하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또는 철골이나 패널을 혼용한 구조가 응용되어도 좋은지 등 새로운 건축실험이 늘어나는만큼 논쟁도 풍부해지고 있다.

결국 신한옥의 정의 역시 앞에서 논의해온 한옥의 정의에 관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옥의 정의를 바로 잡고 의미를 되찾는 일은 강한 주장이나 애정에 따른 편견에 기댈 일이 아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더 명징한 논리가 필요하고, 더 뚜렷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신념이 중요해진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봉희

국가한옥센터 부연구위원 이강민

kmlee@auri.re.kr

4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1』, 국토해양부, 2009.10.